



■ 라틴아메리카 사회과학연구회(CLACSO)

서 라 연

라틴아메리카 사회과학연구회
(www.clacso.org.ar)는 유네스코 협
력기관으로 1967년 설립된 비정부 국



Consejo Latinoamericano
de Ciencias Sociales
Conselho Latino-americano
de Ciências Sociais

제기구로,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 지역의 약 210여개에 달하는 사회과학 분야 연구기관과 학위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다. 또 사회과학 분야 연구와 교육의 진작, 지역내외 연구단체와 연구자들 간의 상호 협력과 교류 강화, 지적 결과물의 생산적인 대중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 지역의 통합 문제를 포함하여, 비판적이고 다양한 관점에서 개별 국가의 사회, 경제, 정치적 문제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이해를 모색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 사회과학연구회의 주된 활동은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학술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먼저 소속 연구조직과 연구자들이 지역의 시급한 관심주제를 다루기 위해 구성하는 일련의 연구그룹을 들 수 있다. 대표적인 연구조직인

이 연구그룹들은 사회과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문적 의제를 수용하면서 라틴아메리카 연구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다. 다니엘 마토 중심의 연구그룹이 진행한 최근의 세계화와 관련된 논의나, 문화와 권력에 연구 등이 대표적이라 할 것이다. 또한 개별 연구자들 역시 라틴아메리카 현안 주제를 연구하기 위해 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상호 교류협력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CROP(Comparative Research Program on Poverty)과 공동으로 빈곤 문제를 다루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아시아지역과의 교류협력 프로그램인 SUR/SUR를 운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이다. 가상캠퍼스 시스템은 원격강의를 통해 연구자들의 연구능력을 배양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가상도서관은 라틴아메리카 연구자들이나 라틴아메리카 사회과학연구회가 생산한 정보들을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방대한 양의 정보와 접근수월성, 그리고 효율적인 네트워크 때문에 라틴아메리카 사회과학연구회는 라틴아메리카 지역 연구에서 중요한 허브 역할을 한다. 또한 지역 내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다루는 정기간행물인 《라틴아메리카 사회 전망대 OSAL》를 포함하여 다양한 출판물과 시청각 자료는 연구 성과의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다.

2007년 창립 40주년을 기념하여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된 학술대회 주제가 ‘라틴아메리카 비판적 사유의 현황’이었던 것에 알 수 있듯이, 라틴아메리카 사회과학연구회는 라틴아메리카에서 비판적 사유의 전통을 부활시켰으며 지역의 다양한 지적 흐름들이 형성되고 소통되는 학문적 진지라는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